‘사랑의집’ 운영 추가 연장… 입소자 가족 반발

제주시 “내년 4월까지 전원·자립 위한 한시 조치”
가족 “장애 특성 고려 없이 전원… 인프라도 부족”

제주시 소재 장애인주거시설인 ‘사랑의집’ 운영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이뤄진 이번 추가 연장이 행정차원의 마지막 조치라는 점에서 입소자 가족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1일 ‘사랑의집’ 시설 폐쇄 이후, 잔류 중인 이용자 12명의 안전한 보호와 전원·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에 따른 관련 소요 예산은 올해 1억8000만원과 내년 4개월까지 3억6800만원 등 5억4800만원으로 예상된다.

당초 시는 시설 폐쇄시점인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임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호자의 전원·자립 반대와 이용자별 장애 특성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원·자립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연장 조치에 나섰고, 이와 관련 시설 재운영이 아닌 잔류 이용자별 적합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전원·자립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적인 한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추가 연장 기간을 전원·자립을 위한 마지막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이용자별 전원·자립 계획 수립 ▷보호자와의 전원·자립 관련 집중 협의 ▷전원·자립 관련 법적 검토 등 세부 계획 추진 및 진행 상황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랑의집 입소자 가족의 반발과 함께 실질적인 전원·자립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보호자 A씨는 “행정차원의 잔류자에 대한 전원·자립 지원에 있어, 입소자별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프라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전원했다가 낯선 시설에서 사고로 크게 다쳐 중환자실까지 가는 일도 있었고, 정작 병원에서도 장애 특성상 잘 받아주지도 않았다”며 “제주도내에는 장애인 돌봄시설이 부족한데, 장애인시설 폐쇄가 아닌 해당 시설을 장애인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사랑의집 입소자는 37명 중 현재 잔류 인원은 12명이다. 최근 3개월 임시 운영 연장 기간에 1명이 전원된 것이 전부다.

사랑의집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입소자에 대한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서 2023년 7월 말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사랑의집 임시운영 연장… 자립 대책 마련을”

피해자공동대책위, 2일 성명 통해 실질 대책 촉구

제주시가 반복된 인권침해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에 대한 임시 운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대책위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 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전원 자립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임시운영 연장이 단순한 시설 전원 절차의 마무리가 아닌 피해생존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제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랑의집을 떠난 25명 중 84%인 21명이 다른 시설로 옮겨졌으며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전환된 사람은 2명(8%)에 불과하다”며 “시설 간 이동과 지역사회 자립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개별 지원 필요에 따른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낮 활동 실행계획 수립과 제주도와 제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도지사는 이를 위한 부모회와 공대위의 면담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EZ 조업 허가조건 위반 해경,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선단 A호(215t)와 B호(218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선인 A호는 전날인 1일 오후 1시 54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3㎞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을 했으나 갈치 등 어획물 약 3000㎏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함께 종선인 B호에서 넘겨받은 어획물 약 600㎏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B호는 갈치 등 798㎏ 상당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실제 어획량보다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관련 절차에 따라 담보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석방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참조기 떼어내는 어민들 2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민들이 참조기 그물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선거사무소 등록 없이 수당 지급”

도선관위, 교육감후보자 연락소장 등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하고, 사무원 수를 초과 운영한 모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과 연락소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3명을 지난 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600 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간 연락소가 둘 수 있는 사무원 수를 초과하여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해상풍력 추진으로 어장 상실 우려”

어업인피해대책협의회, 2일 대책 촉구 기자회견
“어업인 배제돼… 서해안 사례처럼 민간위 둬야”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어장 상실이 우려된다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해상풍력어업인피해대책협의회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구좌읍 한동·평대, 대정읍 모슬포, 한경면 신창, 추자도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사업은 바다를 터전 삼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강용주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도 어업인들은 제주도 전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연근해 허가를 발급받아 조업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구역에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어장 상실과 어획량 감소 등 어업인들의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상풍력 추진구역을 보면 갈치, 한치, 방어 등 제주도 주력 어종이 어획되는 구역이다 보니 해상풍력에 의해 어장 상실이 생기면 어업인들의 수산물 어획 감소 피해는 수산물들을 위판하는 수협과 유통상인들의 인력 감축 등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과 사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해안의 경우 10년 전부터 해상풍력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 전에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하에 어장환경 피해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서해안처럼 해양풍력 추진에 있어 민간위원회를 둬 소통을 하며 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소통없이 해상풍력이 추진되면 어업인들과 종사하는 어선원들, 수산물 유통상인 등과 연합해 집회시위에 나서는 한편 수협중앙회 등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회 의원에게도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큘고리 | 큘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큘고리’가 있습니다!

큘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큘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큘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큘고리 작업세트 구성



큘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큘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